

선불교 뿌리는 어디?

'단경' 판본 논쟁

인경 스님 '덕이본' - 신규탁 교수 '돈황본' 주장

선불교의 뿌리가 되었던 혜능(638~713·원나라) 스님의 <육조장경>(이하 단경)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당(唐)대의 돈황본과 송(宋)대의 덕이본을 놓고, 어떤 판본에서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야 할지 진지한 학문적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제9차 월례발표회에서 인경(동국대 강사) 스님이 발표한 '덕이본 단경의 선사상적 의미'라는 논문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신규탁(연세대)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경 스님은 논문에 "덕이본(

단경)은 임제종이 당시 선종의 일파였던 법안종을 비판하고, 선종의 전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펴냈다"며 "임제종의 법맥을 잇고 있는 한국의 선불교계에는 이 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규탁 교수는 "두 판본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심 사상은 돈오(頓悟)와 무심(無心)이고, 한국의 선불교 역시 이 사상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간단히 말하면 단경은 돈오(頓悟)와 무심(無心)이 혜능 스님의 단경의 전통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황본(단경)에 합을 실었다.

두 판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신회(670~762·당나라) 스님이 대



◇인경스님 ◇신규탁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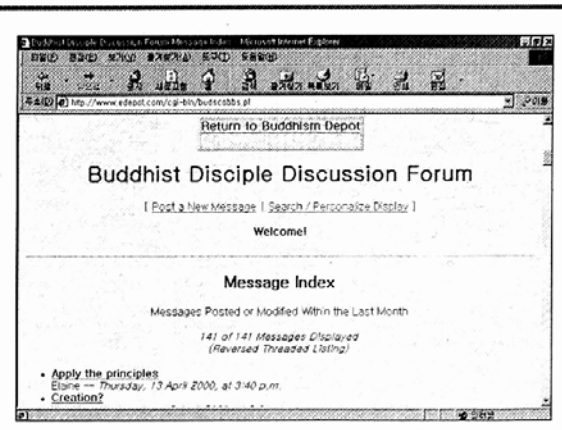
인경 스님은 "덕이본에서 전범의 주체는 '이'로만 표현되어 있다"며 "이는 교설이 아닌 깨달음의 체험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의 선불교가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전통을 세우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경 스님은 "돈황본에는 '단경을 소지한 사람은 나(혜능 스님)를 친견하듯이 하라' 등의 표현이 있는데, 깨달음을 <단경>이라는 책 자체에 한정된 것에서 덕이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신규탁 교수는 "돈황본에는 중국에서 태동했던 선종의 본래 사상이 담겨 있으며, 그 뒤에 나온 판본에는 후대 선사들의 사유가 더해져 있다"며 "선종사상에 대한 연구는 선사사적 어록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찾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인 신회 스님의 저서와 관련 자료 등이 부족한 만큼, 가장 먼저 발견된 돈황본(단경)에서 선사상의 본 뜻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탁 교수는 "돈황본은 '돈오돈수', 덕이본은 '돈오점수'를 각각 강조하고 있어, 판본 논쟁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한국 선불교의 입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판본 중 우리 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덕이본 판본이지만, 현재 불교학계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는 판본은 돈황본이다. 국내에는 돈황·덕이·설송본 등 모두 13종의 판본이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수장교

미국인 불자 자주 찾는 전자사랑방

인터넷의 하이 테크를 즐기며 미국의 불교를 탐험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을까?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불자 네티즌들이라면 '불교 수장교(Buddhist Depot)'에 접속하면 된다.

'매트릭스' 불교적 비평 '불교 토론' '채팅(대화)' 'E-메일' '비디오 및 미술 감상' '전자 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현재 미국인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자 사랑방으로 꼽힌다.

▲불교 토론 서비스는 동시대 미국인 불자들의 시사·학술적인 주제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국내 N세대의 이목이 집중됐던 영화 '매트릭스'에 대해, 어떤 불교적 비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서비스의 창에 올린 글을 읽어보면 미국인 불자들의 활발한 상상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또 이 곳에는 <법구경> <반야경> 등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경전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논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인 불자들이 채팅(대화)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 사이트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대화방에 들어가면, 자비심 가득한 불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i' 'In Dharma' 등의 단순한 영어로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이 서비스를 통해 좋은 법우(法友)를 만나면 ▲E-메일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남겨 놓으면, 외국인

法友들과 만나 법거량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표 인사로 꼽히고 있는 벨 훅(Bell Hook) 여사와 페마 초드론(Pema Chodron) 스님이 '두카' <dukkha> '苦'를 주제로 한 대담 내용이 이 곳에서는 열람 가능하다. 바로 전자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고통을 다루어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 붙이는 일상의 관습이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는 등의 두 여성지도자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비(非)종교의 틀을 만들 수 있다. 'Hi' 'In Dharma' 등의 단순한 영어로도 참여 가능하다.

만약 이 서비스를 통해 좋은 법우(法友)를 만나면 ▲E-메일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남겨 놓으면, 외국인

남과 북 동질성 문화재서 찾는다

북 지정문화재중 성보 33%

분단의 벽에 가려진 채 역사적 기억의 공간에만 존재하던 북한의 불교문화재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학계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이를 계기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할 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는 1993년 말까지 국보 50점, 보물 53점, 사적 73개소, 명승지 19개소 등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불교문화재는 국보 19점(38%), 보물 35점(66%), 사적 4점(5%) 등 모두 58점으로, 전체 지정 문화재의 33%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련 학계는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유교·불교문화재를 배척해왔다"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중요 불교문화재들이 대거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묘향산과 보

현사에 소장된 '말판대장경'이나 고구려 불상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원오리소조불' 그리고 남방불교의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금강산 출토 '아미타삼존불'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불교문화재들을 이념 논리에 따라 그 가치를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문화재와 관련해 북한의 두드러진 성과는 <조선 유적·유물도감>이다. 1989년 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가 전 20권으로 엮어 낸 이 도감은 또 남북 문화재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 텍스트로도 적극 활용됐다.



○83년 북한의 강원 금강산에서 출토된 '금동아미타삼존불'. 따라서 교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50여년간 이념에 밀려온 북한의 불교문화재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신앙과 연구의 대상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문화부 '바쁘다'

문화재 조사·박물관 지원 등 업무 폭증

"대전 비래사입니다. 불상이 오래 되었으며,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까?" "박물관을 개원하는데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임철)가 바쁘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본·말사의 전화 문의에 응답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은 기본이고, 수 차례 출장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김현권 주임은 "문화재 지정의 경우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한 주에 2건 정도 본·말사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최근 대전 비래사에서 17세기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을 조사했는데, 김 주임에 따르면 "민속자료" 정도는 무난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가평 현암사, 경북 경산 재석사, 전남 담양 용추사, 서울 연화사 등이 조사 방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재 조사' 이외에도 △(성보) 2점 발간 준비 △법률 자문 △성보박물관 지원 △전통사찰 관리 △성보 조사 및 전산화 △북한문화재 조사 등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고작 4명의 정·임시 직원들이 5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성보문화재를 관리하고, 관련 업

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업무 가운데 문화부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법률' 관련 업무다. 현재 진행중인 대원사 목각사자상 반환 소송의 경우, 실정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종단내 관계법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대원사 외에도 문화부는 청원사·종흥사·도감사·삼학사 등의 문화재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며,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협의하고 있다.

"올해 화엄사와 해인사 그리고 이들 말사의 문화재를 정밀 조사하고, 또 8월부터 강화도 일대의 문화유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일침(조계종 문화부장) 스님은 "문화부는 종단 지원의 폭을 늘리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또한 '성보지킴이'로서의 협력 역할을 성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우)은 22일과 29일 불일 문화회관에서 각각 '월례발표회'와 '불교와 심리학 발표회'를 갖는다. 22일 월례발표회에서 이병욱(고려대 강사) 씨는 '보조 스님의 선교일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논평은 이창규(전북대 강사) 씨가 맡는다. 또 29일 '불교의 연기론과 상량'을 주제로 마련된 '불교와 심리학 발표회'에서 윤호균(가톨릭대) 교수가 발제하고, 권성만(서울대) 교수와 전재성(한국발성선전협회장) 씨 등이 논평한다. (02)733-5311

고고학·미술 등 논문 공모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은 정기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할 논문을 공모한다. '방방본'의 설립:한국 미술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오는 2001년 3월 16일 개최될 회의는 논문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의 미술사학·고고학 성과를 서구에 소개하고, 동·서양간 활발한 논문 교류를 꾀하고자 마련된다.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의 고고학·미술·건축에 관련된 1차 발표 논문을 3백자 내외(영어 또는 한국어)로 요약하여, 6월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kwilson@lacma.org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실보화하고 소원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 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좌 보살님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신 사찰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등반 한 두마리도 밝혀 주시던데 큰 크나 도움이 되셨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일동안 상천배기도를 지성으로 드려서 오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남다른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열정을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니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장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공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먹고자해회를 꼭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애절한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산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마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사실을 만들고저 하니 불자님 기정에 다 읽으신 불사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던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후자의 힘으로 도사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드립니다.

- 등불을 밝히는 본래는 일년내내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음도 필입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올리실분은 가족상황과 전화번호를 꼭꼭 보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왕1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 (0575) 873-2724 휴대: (016) 521-2724
주지 광승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협: 711089-51-0656599
▶ 예금주: 광명회 우체국: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신원리수당 • 서양초등학교 • 대명초등학교
← 영천 →
신원리수당 • 서양초등학교 • 대명초등학교
← 영천 →
신원리수당 • 서양초등학교 • 대명초등학교
← 영천 →

연밭 (연꽃씨) 을 드셔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연밭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 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질을 가지고 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生命)연장(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더러은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味甘無毒養氣力 除百疾補五臟 止渴益神安心 多食令人喜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본초강목 일부 중에서 --

補中, 益氣, 止血, 治痢 등의 효과가 있다.

기운을 더해주고 몸을 보신해주고 지혈작용과 지혈병을 다스리는 효험이 있다.

- 삼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사전 중에서 -

1kg포장에는 알곡원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속skin과 껍질을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알곡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1500여개가 들어있으며 충분히 물에 불리신후 사찰이나 가정에서 법지일 때 콩개념으로 넣어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되어 판매
	5Kg	55,000원	
	10Kg	105,000원	

예금주: 기업은행 (337-009547-04-018) 인창 물산농협 (217028-52-013565) 여진구

인창 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44)907-2567, 906-5691-2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의장점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인건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0671634-0223
팩스: 067134-1237